

# 의왕 문화 6호



사근행궁으로의 이가행렬



의왕문화원

# 의왕 문화 6호

## 표지그림



### 사근행궁터

의왕시 고천동 272-2번지 고천동사무소 내에 자리잡고 있는 사근행궁터는 조선조 효도대왕으로 일컬어질 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22대 정조가 부왕(아버지)인 시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일시 쉬어가던 곳이다. 1760년 사도세자가 온양 온천에 행차할 때 이곳 사근현(현: 지리대)에서 쉬어간 일이 있었는데 효성이 지극한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서 부왕인 시도세자의 묘를 수원의 화성으로 이장하던 1789년 10월 6일 상여가 이곳에 이르자 마중한 이곳 노인들에게 경기감사로 하여금 쌀을 나누어 주게 하고 사근병에 병궁을 지으니 이름을 사근행궁(喪行宮)이라 하였다.

정조는 재위기간 현릉원 일대를 12차례(왕차 24회) 거동하였는데 전후 5번에 걸쳐 이 사근행궁에 직접 들리 주장하였고, 특히 1795년 2월 10일과 15일에는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함께 들러 수라(식사)를 들기도 했다.

정조의 거룩한 효행을 추세를 기리기 위해 백운동에서 기념비를 세웠으며 시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 제목취호

### 박 용 빈

-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사(서협)
-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안양지회(안양, 과천)
- (현)의왕문화원 서예강사(2002. 10~ )

# 차 례

■ 발간사	8
■ 시민현황	9
■ 첫째마당-사진으로 본 문화행사	10
• 회장 이·취임식	
•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 의왕시사 밤간 기념식	
• 문화유적 답사	
• 단오축제	
• 옛길걷기대회	
• 백운서예대전	
• 의왕시 청소년음악제	
•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 송년음악회	
• 향토문화연구소 정기답사	
■ 둘째마당-논단	24
•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저점 수양론-심경섭	
■ 셋째마당-인터뷰 글 모음	28
• 고천초등학교 편	
• 부곡중학교 편	
• 백운고등학교 편	
■ 넷째마당-글 모음	34
• 수학 익힘책 찾기 / 윤치호	
• 공주를 다녀와서... / 이승아	
• 나는 경기도가 좋아요! / 김성진	
• 돈보다 귀한 것 / 이정민	
• 땀집은 날+효소 평집+힘든날 / 이은서	
• 산다는 것의 감사한 행복 / 김서연	
• 모란꽃 / 최선화	
• 우리의 용암 / 박소진	
• 변화의 계절 / 이우경	
• 사람이란 / 송대연	
• 고3아들에게 / 김미현	
• 짐수야 / 박영원	
• 걷는 기분, 기분 좋은 하루 / 이삼근	
• 금강산 들살이 / 은뜻학교 교사 조복강	
• 아름다운 내 고향 의왕 / 이필정	
■ 다섯째마당-문화원 소식	81

## 『의왕문화 6호』를 발간하며...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의왕문화원에서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의왕문화 6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고장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정보를 실었으며 학생과 시민들의 글을 모아 작지만 알찬 문화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원장 이종훈

조금씩 변모해가는 의왕문화 발간으로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평생교육과 내 고장 문화탐방 및 유적답사를 통해 문화 창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우리문화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 우리고장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적 창의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왕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고장의 전통과 조상의 얼이 담긴 발자취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풍요롭고 성숙된 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의왕문화 6호를 발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지웅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의왕문화원장 이종훈

## 의 왕 시 민 현 장

백운산의 맑은 정기와 청계산의 높은 기상을 이어 받은 우리 의왕시민은 정의와 평화의 봉사자로서, 내 고향 의왕을 지상 낙원의 값진 터전으로 만들고자 뜻을 모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헌장을 마련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 다짐한다.

1. 우리는 의왕의 이름 따라 참되고 올바른 길을 힘차게 걷는다.
2. 하늘이 주신 정겨운 내 고향 자연을 몸소 배우며 정성껏 가꾼다.
3. 믿음과 최선으로 서로 화목하고 돕는 정신을 실행한다.
4. 근면과 검소로 풍요롭고 알찬 생활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5. 어른은 어린이에게 꿈을 키워주고 자라나는 세대는 웃어른을 섬기는 심성을 닦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왕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일의 이상적 한국인으로서 세계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는 보람으로 오늘을 기쁘게 다져 나간다.



## 첫·째 마·당

### 사진으로 본 문화행사

- 원장 이·취임식
-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 의왕시사 발간 기념식
- 문화유적 답사
- 단오축체
- 옛길걷기대회
- 백운서예대전
- 의왕시 청소년음악제
-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 송년음악회
- 향토문화연구소 정기답사



## Ⅲ 원장 이·취임식



▲ 제2대 박용하 원장 이임 및 제3대 이종훈 원장 취임식



▲ 의왕문화원기 전수

# 원장 이·취임식



▲ 제3대 이종훈 원장 취임사



▲ 신임 원장으로부터 공로패 받는 박용하 원장



▲ 신임 원장으로부터 공로패 받는 김강호 부원장

#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 정기총회 참석한 대의원



▲ 2007년 임시총회



▲ 의왕문화원 이사회의

## Ⅲ 義王시사발간 기념식



▲ 이종훈 원장 義王시사 발간 기념사



▲ 義王시사 발간에 기여하신 분들께 감사패 전달



▲ 관내 초·중·고, 대학 대표학생에게 義王시사를 전달하는 이종훈 원장

## 문화유적 답사



▲ 2007 봄 문화유적답사-여주 명성왕후 생가에서 해설사 강의



▲ 2007년 봄 문화유적답사-세종대왕릉에서

## Ⅲ 문화유적 답사



▲ 2007년 가을-충남 공주답사, 공산성 입구에서



▲ 고천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지역 역사문화 강의(강사 박철하)

# 단소축제



▲ 민요로 하나되는 개막무대



▲ 단소아중마 선발대회



▲ 성인부 씨름대회



▲ 박희승의 줄타기 공연

## ⅢⅢ 옛길걷기대회



▲ 문화원을 출발한 이종훈 원장과 임원 및 시민



▲ 옛길을 걸으며 의왕시의 새, 꽃 사진을 관람하는 시민들



▲ 옛길걷기를 마치고 행운상 시상

# 백운서예대전



▲ 서예대전 전시-오픈식



▲ 우수작품-여성회관 전시



▲ 수상자들과 함께

# 백운서예대전



▲ 의왕서예 휘호대회-여성회관에서 의왕시 한자변경을 자축하며



▲ 의왕서예 휘호대회-대상을 수상하신 구자영 씨



▲ 의왕서예 휘호대회-수상자들과 심사위원



# 의왕시 청소년음악제



▲ 청소년 음악제-수상자들과 함께



▲ 청소년 음악제-명지대 관악5중주



▲ 청소년 음악제-피아노 부문 참가 학생의 연주



# 소녀·소년 합창단 공연



▲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 합창단 정기공연 오픈 무대



▲ 50여명의 단원이 함께 공연한 멋진 무대



▲ 합창단의 변신-뮤지컬

# ||| 송년음악회



▲ 송년음악회 참석하신 내빈



▲ 음악으로 하나된 시민



▲ 가수 문희옥 씨의 열창

# ||| 송년음악회



▲ 가수 신나의 열창



▲ 송년음악회



▲ 소프라노 박미경의 무대



▲ 최재훈 연주

# 향토문화연구소 정기답사



▲ 향토답사 참가자



▲ 향토답사-창덕궁



▲ 향토답사-경복궁



▲ 향토답사-창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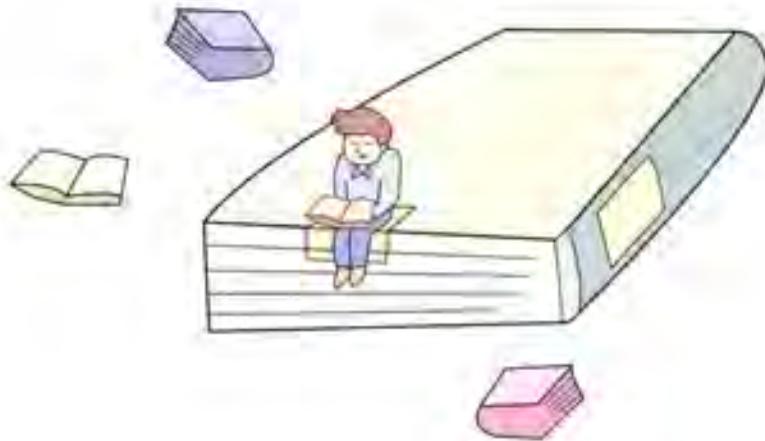
둘·째  
마·당

논 단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거경 수양론

— 심경섭

둘·째·마·당



## 우리 고전의 향기를 찾아서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거경 수양론

심경섭\*

### 요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퇴계의 영대 및 시대적 상황
- III. 퇴계 거경 사상의 연원
- IV. 퇴계의 성리학
- V.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
- VI. 성학의 개념과 내용
- VII.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내용과 특성
- VIII.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거경(거경서설)
- IX.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치위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및 자유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인간소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동·서양 어느 사상에서 참다운 인간의 길을,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서양이 아니라 동양, 동양에서도 우리 삶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사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유학 전통에 대해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간에 아직도 우리 사회 도처에 어떤 형태로든 유학적 전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인들은 한국을 가리켜 서슴없이 '유학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중국에서도 '현대의 유학 국가'라 부르기도 한다. 바찬가지로 서양인들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유학을 단순한 역사적 존재나 골동품이 아니라 두드러진 사회적 변형을 이루는 추진력의 일부로 보고 있다.<sup>1)</sup>

\* 우성고등학교 교사

1) 미국 리버드 대학의 루 웨이빙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으로써 '신공공론'을 제시한 바 있다.

유학은 공(孔)·맹(孟)에 의하여 그 원형이 제시되고, 이정(二程)<sup>27)</sup>과 주자<sup>28)</sup>에 의하여 새롭게 체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퇴계와 율곡에 의하여 한층 새롭게 발전하였다. 또한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본적 사유(동찰)를 통해서 삶의 궁극적 비전을 제시해주었으며,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문화 의식 축에도 녹아 흐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의 율곡은 삶의 모습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자하는 우리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삶의 귀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일생동안 학문과 인격수양에 매진하여 '경(敬)'의 철학을 완성한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사상<sup>29)</sup>을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sup>30)</sup>을 통한 가치 있는,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퇴계의 생애 및 시대적 상황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조선 중엽 16세기 후반에 활동하였던 학자였다. 그는 중국 송대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을 이어 받아 그것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적 성리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율곡 이이(栗谷 李瑄, 1538-1584)와 더불어 조선시대 성리학을 대표하는 석학이요, 도학적 인격체의 전형인 선비상의 모범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그의 생애는 연산군(1494-1506)·중종(1506-1544)·인종(1544-1545)·명종(1545-1567)·선조(1567-1608)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사화기(士禍期)<sup>31)</sup>라고 할 수 있다. 퇴계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출처(出處)와 진퇴(進退)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는 어지러운 현실(정치)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학문과 저술에 전념하고, 서원의 창설 등을 통하여 참교육을 실천해보려고 하였으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많은 시작(詩作)을 통해 깊고 새로운 정신적인 경지를 체험하고 표현하였다.

그의 생애는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초년기는 그의 출생(연산군 7년, 1500)으로부터

- 27 북송시대(960-1126)의 성리학적인 정호(程頤, 1032-1085 호 목(頤))와 정이(程頤, 1033-1107 호 익(伊)) 양자를 말한다.
- 28 주자(朱子, 1130-1200)는 중국 남송 때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성리학의 집대성자로, 최후에 학자인 철학자, 주철제, 정명도, 장이권의 학설을 정리하여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성리학은 중국 사상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조선왕조 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29 퇴계 '경(敬)' 철학의 경수(敬誦)는 퇴계 사상의 핵심체라고 말할 수 있는. 앞년의 저서 『성학십도』에 잘 나타나 있다.
- 30 '전통'과 '현대'는 바로 '뿌리'와 '가지'처럼 유기적 밀착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낱실과 씨실처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인 것이라 어느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도 온전하게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현대사회의 전통의 기반을 흔들라게 함으로써 빠른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혼란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30 그의 생애와 저술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퇴계가 태어나기 3년 전인 연산군 4년(1498)에 부조식화가 일어났고, 그가 4살 때인 연산군 10년(1504)에 갑자사화가 일어났으며, 그가 19살 때인 중종 14년(1519)에 기묘사화가 일어났고, 45살 때인 명종 14년(1543)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기묘사화와 인한 조광조의 죽음은 그의 인생과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을사사화로 인한 외화정치는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저술과 저술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세(중종 28년, 1533) 때까지로서, 이 시기는 유교 정진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였던 수학기(修學期)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년기는 34세(중종 29년, 1534)로부터 49세(명종 4년, 1549)까지의 시기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면서면서부터 풍기군수를 시작할 때까지의 출사기(出仕期)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만년기는 50세(명종 5년, 1550)때부터 70세(선조 8년 1570)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관직은 더욱 높아졌지만 끊임없이 사퇴하면서 고향에 돌아와 연구·강의·저술에 전념하였던 강학기(講學期)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만년에 물러나 학문을 연마하여 이룬 업적은 한 시대에서 도학이념(道學理念)<sup>7)</sup>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학이념을 철학적으로 심화시키고 도학의 화풍을 일으킴으로써 그 이후 조선시대 사회이념의 도학적 기반을 확립시키는 원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다.

### Ⅲ. 퇴계 거경 사상의 연원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운 까닭은 인간 본래의 도덕성에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덕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이를 윤리적, 사회적으로 구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학문인 유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인간 자신의 존재원리를 구현하여 자기완성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문제의, 또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욕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 본래의 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수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의 인격함양은 유학의 중심문제이며, 그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또한 내용면에서 점차 심화 되어갔다. 유학은 인간이 수양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

7) 도학(道學)은 도(道)를 근본으로 하는 학(學)이다. 유학(儒學)의 도(道)는 공자가 추구한 '도'로서 인간의 '도'를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밟고 따라가야 마땅한 인간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도'는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천도(天道)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는 이러한 도덕적 당위성을 갖는 인도(人道)의 구체적인 덕목으로 인(仁)과 의(義)를 제시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도'를 계승하여 송대(宋代)에 확립된 도학사상에는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성리학(性理學),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옳바르고 이상한 삶을 추구하는 의리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人道)를 중심으로 하는 송대(宋代) 도학사상의 핵심 과제는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당연한 이치로서의 '도'는 인간을 떠나서는 인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없이 있는 '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 문제는 인간의 자기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인간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본질에 따라 살면 필연적인 생활 속에서 올바른 인간의 '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존재와 인간의 당위를 일치시켜 보려는 것이 유학의 기본 입장이었다. 인간의 당위규범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본질 속에는 무주의 존재 원리인 천리(天理)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천(天)에서 유래된 본질을 따르는 행위가 '도'가 되는 것이다. 즉 인도(人道)는 천도(天道)에 근거하여 성립되고 천도는 인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송대 도학은 주돈이(周敦頤)·성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주자(朱子)로 그 맥이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도학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김계(金絿, 1353-1418)·김구자(金叔堅, 1380-1456)·정여필(鄭汝弼, 1450-1504)·조광조(趙光祖, 1482-1510)로 그 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조광조는 한국사상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학자이다. 그는 조선초 사림의 경수(景祐)로서 퇴계와 율곡을 위시한 후대 사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으로 사회·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이룩하는 것을 학문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유학의 인격 수양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공자는 내성적인 방법보다 그 실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맹자는 이러한 방법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존양(存養) 공부를 강조했다. 송나라 때에 이르러 맹자의 존양공부는 '정(靜)을 강조한 공부'와 '경(敬)을 강조한 공부'로 나타나게 된다.

송대(宋代)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논함에 있어서 『상서(尙書)』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sup>10)</sup>에 바탕하여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구분하고, 성(性)을 논함에 있어서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구분하며, 정(情)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단(四端)<sup>11)</sup>과 칠정(七情)<sup>12)</sup>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인심과 도심,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도심과 본연지성과 사단이 중심이 되어 인심과 기질지성과 칠정을 다스리는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것에 있다. 여기서 수양(修養)의 문제가 제기 된다. 북송시대 수양론을 살펴보면, 주돈이(周敦頤)는 주정(主靜)과 무욕(無欲)을 강조하였고, 심호(程顥)는 정좌(靜坐)를 정이(程頤)는 경(敬)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이는 매우 체계적으로 '경'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경'이라는 개념은 이미 선진유학(先秦儒學)의 오랜 문헌들에서부터 여러 의미와 용례를 가지고 쓰여 왔으나, 정이에 의하여 마음공부의 요점으로 부각된 이후 수양 측면에서의 의미가 더욱 구체화 되고 확장되었다. 주자는 이러한 북송시대 유학자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보완하면서 거경합양(居敬合養)의 수양론을 정립시켜나갔다.

#### IV. 퇴계와 성리학

퇴계 어항이 평생 동안 배우고 알려고 했던 것은 오다가다 듣게 되는 잡다한 지식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실용 지식이 아니었다. 퇴계에게 가장 큰 일회 대상은 '인간'이었다. 인간은 어떤 원리로 태어나고, 인간과 만물이 무엇 때문에 구별되고, 어떤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며, 인간다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 퇴계의 관심사였다.

퇴계가 이 같은 의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기반은 성리학이었다. 여기서 '퇴계가 왜 하필이면 성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자신의 철학적 문제를 설명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은 '왜 내가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과 별로 다르지 않다. 퇴계가 살았던 시대는 성리학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학문만이 아니라 나라의 건국 이념 자체가 성리학이었으며, 따라서 일반 백성의 생활 방식까지도 성리학적 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10) 인심도심설은 원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굳어하나, 성(精)하고 맑아 해야 진실로 그 중(中)을 알리라"라는 『상서(尙書)』, 『대부(大誥)』의 글에서 기원한 것으로 성리학시대 인간학의 학자들과 주옥을 받기 못하다가 주자에 의해 마음 정화(正氣)의 주제로 새롭게 해석되면서 성리학자들의 중요한 공부 과제로 부각되었다.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인심도심설에 대해 다양하게 논쟁하면서 그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퇴계 어항은 도심을 유학에서 다루는 집약적인 마음으로, 도심은 본성에서 발류하는 도덕적인 마음으로 이해하였다.

11) 사단이란 말은 『맹자(孟子)』에서 처음 나온다. 여기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갖추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 측은지심(惻隱之心), 주우지심(羞惡之心), 작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는 사단을 제시하고 있다.

12) 칠정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나오는 말로, 인간의 입을 기어 앉을 때, 기뻐할, 성냄, 슬피할, 두려워할, 사랑할, 이질할, 담담을 말한다.

퇴계는 당연히 성리학의 환경과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사상을 키워 갔으며, 나아가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한층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퇴계의 사상을 짚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리학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퇴계는 주자를 하늘 아래 최고 의 스승으로 여기고 주자의 이론에 충실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성리학은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이다. 집대성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성리학은 주자 한 사람의 독창적인 사상 체계가 아니라 이전의 여러 사상을 주자가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은 공맹 유학을 뿌리로 하여 도가와 불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저기에다가 북송오자(北宋五子)<sup>11)</sup>의 사상을 자양으로 하여 결집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심성의리(心性義理)'의 줄임말이다. 심성의리(性理)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성리학의 주된 테마를 읽을 수 있다. 즉 성리학의 주된 관심은 마음과 본성, 옳음과 이치다. 그런데 마음의 핵심이 본성이고, 옳음의 근원이 이치이기 때문에 '심성의리'는 '성리(性理)'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성(性)과 리(理)는 각기 대응되는 개념이 있다. 성과 정(情), 리와 기(氣)가 그것이다. 리가 원리·도리·형이상 등을 의미한다면, 기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 재료·도구·형이하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리학은 리와 기라는 두 측면에서 천지 만물을 설명한다. 이 세상에 리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마찬가지로 기 없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이를 '불상리(不相離)'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료가 곧 원리라고 할 수 없으며 형이하가 곧 형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논리적 사유의 입장에서 보면 리는 리고 기는 기여서 서로 섞일 수 없는데, 이것을 '불상잡(不相雜)'이라고 한다. 불상리와 불상잡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각기 특색 있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간도 천지 만물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리와 기로써 설명하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것을 성과 정으로 바꾸어서 말한다. 리는 본성이고, 기는 정감이다. 본성은 맹자가 밝혔듯이 오로지 착한 것이고, 기는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는 인간 본성의 순수한 내용을 설명하는 인의(仁義) 큰 사단(四端)에 배속되고, 기는 인간의 욕세·불질에 근거하므로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좋아함, 피워함, 욕구 등 칠정(七情)에 배속된다.

일반적으로 리기(理氣)의 의미와 관계를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리기론(理氣論) 또는 본체론(本體論)이라고 하며, 리기를 가지고 인간 존재를 설명하려는 분야를 심성론(心性論)이라고 한다.

앞에서 퇴계의 주된 관심은 '인간'에 있다고 하였다. 당연히 퇴계는 리기론 자체보다는 심성론에 대한 연구가 깊다. 이것은 비단 퇴계뿐만 아니라 한국 성리학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중국 성리학의 우주의 본체에 대해 탐구하는 원심적 방향성을 가졌다면, 한국 성리학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 탐구하는 구심적 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평한다. 그러나 심성론을 탐구한다고 해서 리기론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리와 기로써 만물을 해명하고, 인간 또한 만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성리학의 큰 목표인 '하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됨'의 주장이 정당할 것이 되기 때문이다.

11) 북송 시대의 다섯 선생 즉, 조응, 주돈이, 장재, 정호, 정기를 가리킨다.

## V. 퇴계와 성학십도(聖學十圖)

퇴계는 평생 동안 성인을 목표로 하여 성학에 진력하였다. 만년에 선조에게 올린 글과 그림을 『성학십도(聖學十圖)』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성학십도』에는 그의 온축(蘊蓄)된 사상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와 내용 및 실천방법 등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성학십도』는 1568년 68세의 노학사 퇴계가 17세의 선조에게 바친 초책자이다. 1568년은 기대승(高待升, 1527-1572, 호 高峯)과의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이 종결된지 2년 후이고, 퇴계가 사망하기 2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퇴계 학문이 최고의 원숙기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가 『성학십도』를 작성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연초한 임금에 대한 우국충정(憂國忠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가 임종 직전까지 수정 작업을 계속하는 등 『성학십도』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퇴계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체계를 집대성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퇴계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敬)사상에 대해 『성학십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성학의 개념과 내용

성학(聖學)이란 성인(聖人)을 목표로 한 학문이다. 여기에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과 함께 성인을 배우는 학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하여 공자는 널리 백성에게 배움에 대강을 세도하는 인(仁)의 극치로서 말하였고, 맹자는 인륜의 궁극적 경지이며, 또한 인간의 덕성이 극대화하여 타인에게 감화를 주는 경지로서 말하였다. 또한 송대의 주돈이도 “성인의 중정(中正)과 인의로써 인간 윤리생활의 최고 표준을 세우고, 사욕이 없는 상태로서의 정(靜)을 위주로 하여 인극(人極)을 세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인간 자신 속에 내재한 성질한 주체성과 보편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체득하여 실천하는 최고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퇴계는 이러한 성인의 구체적인 표상을 고대의 요(堯)와 순(舜)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성학십도』를 올리게 된 이유를 성학을 권도하고 군덕(君德) 보양하여 요순의 융성함에 이르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학에서의 학(學)의 개념은 이론적 지식의 의미보다는 실천적 태도의 의미가 더 크다. 공자가 안연의 호학(好學)을 언급할 때의 ‘학’의 내용도 “노아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이론적 지식의 측면보다 도덕적 실천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학’의 개념에 대하여 “학(學)이란 그 일을 익혀 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sup>12)</sup>라고 하였다. 선을 좋아하면 다만 마음으로 좋아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선을 체득하여 실천에 옮기야 한다는 것이다.

성학의 내용은 ‘안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여 성인이 되고[內聖], 밖으로는 인류 사회에서 퇴계에 의한 왕도의 구현[外王]’이다. 그러므로 넓게 보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목표로 하는 유학 사색

[12] 『퇴계전서』(一), 권7, 「進聖學十圖疏」; 聖學者, 習其事而踐其理之謂也.

를 의미하며 또한 유학의 도를 실현하는 학문이기에 때문에 도학(道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도(人道)의 사회적 구현은 무엇보다도 실천주체의 성숙된 인격이 기초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철학은 내적 자아에 대한 각성과 인격 수양에 초점이 모아진다.

## 2.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내용과 특성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본체론(本體論)·위학론(爲學論)·심성론(心性論)·수양론(修養論)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성리학의 전체 규모를 10개의 '도(圖)'와 '설(說)'로 구성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집약시켰다.<sup>13)</sup> 넓고 깊은 학문적 속력을 압축적으로 집약시키는 퇴계의 학문 방법은 한국사실사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와 '도설(圖說)'의 형식은 가장 간명한 형식으로 빈체한 이론의 핵심을 제시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한국유학사에서 매우 증시되어 왔다.

이러한 '도' 증시의 학풍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던 것이 바로 「성학십도」였다. 「성학십도」는 각각 '도'와 '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퇴계의 보충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0도 가운데서 「태극도」와 「서명도」는 성리학에서 존재론을 대표하는 저작이며, 「소학도」, 「대학도」는 유학의 학문적 규모를 보여주는 저술이며, 나머지 '도'들도 송·원대 성리학자의 저작으로 성리학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퇴계는 「성학십도서문」에서 옛날 현인 군자가 '도에 들어가는 문'과<sup>14)</sup> '덕을 쌓는 기초'<sup>15)</sup>에 대하여 깨와 별처럼 흰하게 보여준 '도'와 '설'을 모았다고 하였다. '도'와 '설'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성리학 사상을 이와 같이 도표화하면서 핵심적 경들이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중국 송대(宋代) 주돈이의 「태극도」와 「태극도설」부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도(圖)와 설(說)의 방법으로 성리학 사상을 밝힌 것은 조선의 권근(權近, 1352-1409, 호 淵村)의 「입학도설(入學圖說)」이 효시를 이룬다. 퇴계 당시만 해도 이 밖에 양사 정자운(鄭子運, 1509-1561, 호 秋翁)의 「천명도(天命圖)」와 「천명도해(天命圖解)」가 있었고, 이황 역시 정자운의 「천명도」와 「천명도해」를 수정한 자신의 「천명도」와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지은 일이 있었다. 「성학십도」는 바로 성리학계의 이와 같은 학풍 상황에서 나왔으며 조선시대 도설의 전형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학문의 체계와 구조를 도설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중국과는 달리 한국유학사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전통을 이루고 있다. 도(圖)와 설(說)의 사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크게 발전하였고, 도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속에 광의적인 도설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14) 선가(禪家)에서는 "한 도에는 길이 있다."("一門無門)라고 말하지만, 유학사상에서는 인간에게 권리를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다고 본다. 권리가 인간에게 내재함으로써 이루어진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인간에게 권리를 할하여 열린 문이라는 것이다. 퇴계는 선한 본성에 따르는 행위인 덕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학문과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5) 덕(德)이란 득(得)과 같은 의미로 자주 설명된다. 도를 실천함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열게 되는 것, 즉 선한 인격을 덕이라고 부른다. 덕은 도를 한번 실천함으로써 쌓이는 것이 아니다. 도를 꾸준히 실천함을 통하여 덕을 두텁게 쌓기 위해서는 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인지에 바탕한 도의 실천은 바로 덕을 쌓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성학십도』에 나타난 '도'와 '설'의 내용

도의 순서	명 칭	도(圖)의 내용	사 상 구 성 별 분 류	
1	「태극도」 (太極圖)	우주 생성 원리, 인도(人道)와 천도(天道)의 관계	천도에 근본을 두고 인본과 덕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것	천도·인간
2	「서명도」 (西銘圖)	나와 우주의 관계		
3	「소학도」 (小學圖)	대인 관계의 기본 덕목과 공부하는 방법		
4	「대학도」 (大學圖)	개인의 인격 완성의 과정		
5	「백록동규도」 (百鹿洞規圖)	사회적인 인간관계와 덕행의 실천 방법		
6	「심통성경도」 (心統性情圖)	심(心)의 체(體)와 용(用)	심성에 근원하여 일상의 실용에 힘쓰고 경외(敬畏)의 태도를 높임에 대한 것	인간·천도
7	「인설도」 (仁說圖)	인(仁)의 실천과 확충		
8	「심학도」 (心學圖)	심(心)의 구조 및 심과 경(敬)의 관계		
9	「경재장도」 (敬齋箴圖)	인간 생활과 경(敬) 공부의 요령		
10	「숙흥야매장도」 (夙興夜寐箴圖)	일상적인 공부 방법		

### 3.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경(敬)사상

퇴계는 『성학십도』의 기본 구조가 경(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敬)은 임의 마음을 다 통한 것이라 공부할 시작하고 그 공효를 지음에 있어서 모두 중시하여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자의 말도 그와 같으니 지금 이 십도에도 모두 경으로써 주(心)를 삼은 것입니다.<sup>10)</sup>

『성학십도』의 각 도(圖)와 경(敬)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도인 「태극도」에서는 태극의 원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천함이 경(敬)과 사(誠) 사이에 있음을 주자의 주석으로 대신하였으며, 제2도인 「서명도」에서는 비록 본문에 '경'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나, '임'의 마음 상태로 심의

10) 『退溪全書』(1)·卷7, 「聖學十圖」, 「小學圖」, 「敬者, 又敬土體」(善工收效 苟無從事而失者也 故夫子之說始敬 而介話十圖行 以敬爲主焉).

본체와 작용을 수양하여 인(仁)의 원리를 체득하여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제3도인 「소학도」와 제4도인 「대학도」에서는 소년의 삼신육성과 성인의 수기치인이 모두 '경'에 의할 때 진정한 체득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제5도인 「백록동규도」에서는 모든 수신과 처사와 집물의 요점이 '경'에 있음을 밝혔으며, 제6도인 「심통성정도」에서는 '경'에 의하여 심(心)을 존양하고 성찰하도록 하였으며, 제7도인 「인설도」에서는 "경"으로 사욕을 극복하여 '인'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제10도인 「속흥야매잠도」에서는 일상생활의 시간에 따라 지켜야 할 '경'의 세목을 밝혀 놓았다.

이상과 같이 「성학십도」 전개가 '경'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경의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동과 정을 일관하여, 안과 밭을 합치시키며, 드러난 곳과 은미한 곳을 하나로 하는 도리이다"<sup>17)</sup>라고 하여 어느 때 어느 경우라도 '경'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경'에 대하여는 이미 「서경」에서 성현의 기본 신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공자도 수기의 방법으로 '경'을 말하였다. 특히 송대에 이르러 유학의 윤리적 실천 방법으로 '경'을 강조하고, '경'의 구체적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즉 창이현은 '주일무리'와 '영제영숙'으로, 그의 문인인 사랑자는 '상성성법'으로, 문돈은 '기심수렴' 등으로 보완하여 설명하였는데, 주자는 이를 종합하여 '경은 한마음의 주제이며 만사의 근본으로서 성학의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였다. 퇴계는 이러한 '경'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그의 실천철학의 근간으로 정립하였다.

퇴계가 「성학십도」에서 제기한 '경'의 실천방법을 정리하여 보면 크게 나누어 내적 심(心)의 수양방법과 외적 사물에 대응하는 수양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로 내적 '심'의 수양방법으로는 일이 없을 때와 일이 있을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이 없을 때는 '심'의 이발 상태인 바, 이때의 수양방법은 순전한 도심을 잘 보존하고, '심'의 본체인 본성을 잘 기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순수한 양심이 인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방법이 모두 이에 속한다. 다음 일이 있을 때는 '심'의 이발 상태인 바, 이때의 수양방법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고, 사심으로 흐른 마음을 극복하여 본심을 회복하는 노력과 항상 스스로를 삼피고 반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심'의 기쁨을 맡고 있는 사(思)가 늘 밝게 깨어 있는 상태와 압축하고 정밀한 가운데 그 마음을 단속하여 어떤 사실도 용납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생각하여야 할 때는 그 일에만 전입하여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외적 사물에 대응하는 수양방법으로는 배우고 묻고 생각하며 분별하는 방법므로 사물의 이치를 정밀하게 궁구하여 올바르게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를 단정하게 하고, 항상 조심하여 삼가고,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일에 전입하여 몸배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 일상생활의 때와 장소에 따라 행하여야 할 더 자세한 '경'의 수양 방법은 「성학십도」 제9도인 「경재잠도」, 제10도인 「속흥야매잠도」에 밝혀 놓았다.

퇴계는 이처럼 지속적이며 수양방법으로 '경'을 실천할 때, 이상적인 성인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17) 『國朝金書』1-1, 권7, 『東聖學于編前』: 持節者, 立所居學堂, 實勸學, 吾內科一節繼之也

고 하였다 또한 완성된 성인 그 자체보다는 성인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에 강조점을 두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일 진보하는 그 모습에 진정한 인간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어부는 모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는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되게 팔고 오래 힘쓰는 것이 어렵다”<sup>150</sup>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올바른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인간존재를 실현하는 자기 목적적 행위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퇴계의 성학이 지향하는 참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VI. 나오는 말

퇴계는 일생 동안 성인(聖人)을 목표로 하여 성학(聖學)에 전력하였다. 『성학십도(聖學十圖)』에는 그의 은축(蘊蓄)된 사상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와 내용 및 실천방법 등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성학이란 성인을 목표로 한 학문이다.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인간 자신 속에 내재한 성성한 주체성과 보편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체득하여 실천하는 최고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퇴계는 학문을 하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자가 제시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를 계승 발전시켰으며, 특히 『성학십도』에서 ‘경’을 중심으로 성인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퇴계는 “경을 모든 철학과 인간 행위의 중심에 두었다. 퇴계가 “경은 성학의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한 말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망에 이끌리게 되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성인의 길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욕(私欲)을 버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려면 오직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밖에 없다. 퇴계는 ‘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용기심을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하며 마음을 엄숙하게 유지하는 정제엄숙(整齊嚴肅)”, “언제나 맑은 상태로 깨어 있도록 하는 방법(상성성법(常惺惺法))”, “마음을 잘 거두어 들어서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수렴함(기심수렴(其心收斂))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인간의 바깥적인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측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도덕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질 중심의 가치추구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경시하게 만들고, 수단이 되어야 할 물질이 목적이 되는 가치전도 현상을 야기시켜, 인간성 상실, 가치관의 혼란,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 가치 있는 삶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참된 도리를 실현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퇴계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법’, ‘기심수렴’ 등의 수

150 『退溪全書』(二), 退溪先生自省錄, 卷1, 『答李叔獻』 節取. 性此理 必無難 必行難 必自難 必進其精力 必其進難

양방법을 통해 참다운 인간의 본래적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지식의 추구하고 마음의 수양을 통해 인간의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퇴계의 이러한 '지행병진(知行並進)'의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인생의 전 기간을 배움으로 채웠다. 배움이 깊어지면 흐르게 마련이다. 산 속 깊은 곳에서 솟는 샘물이 산 아래 못 생명을 적시듯, 이황의 배움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 셋·째 마·당

### 인터뷰 글모음

- 고천초등학교 편
- 부곡중학교 편
- 백운고등학교 편





## 고천초등학교

김태영 교장 선생님

교문을 들어서니 사그네 세터에서 20여종의 각종 희귀종 새들이 저마다 고운목소리를 뽐내고 야외 학습장 사그네 침터에서는 미술 야외수업중인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가 명망하다. 학교 숲에는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오신 할머니의 인자하신 얼굴에 사랑이 넘쳐난다.

올해로 개교 71주년을 맞은 고천초등학교는 1936년 12월 4년제 고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38년 고천공립 심상소학교로, 1941년 고천국민학교로 개명 되었다가 1949년에는 덕잠초등학교가 분리되었고 1993년에는 오천초등학교, 1997년에는 왕곡초등학교를 분리시킨 의황서 교육역사의 보태가 되어온 유서 깊은 학교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입증 하듯 고천초등학교 출신들은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고 현재에도 각계각층의 요직에서 일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학부모라면 누구라도 내 자식이 좋은 분위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원할 것이고, 더불어 대신배들이 훌륭한 멘토로서의 상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것이 있을까.

편 김태영 교장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리면서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6여 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민성교육에 가장 치중을 해왔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 재미있는 학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힘써 왔다. 교육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부지향적인 교육 형태를 배제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것들을 파악하여 교육하는 내부지향적인 교육을 펼쳐 왔다. 고천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밝은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도덕인, 스스로 공부하고 보람을 찾는 자주인,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



하는 창조인,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건강인, 근검절약하며 환경보호를 생활화하는 환경인 등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특히 유사 깊은 명문학교답게 자랑거리가 넘쳐나는데 명품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교생에게 리코디를 배급하여 시도해온 결과 군포의왕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리코디 경연대회에서는 합주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개의 컴퓨터실 중 하나는 전교생이 교육과정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상설운용을 하면서 누구나 원한다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상주해 있다.

또 다른 중점 교육은 독서지도인데 어떤 때의 독서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천초등학교의 보유질서는 단행본만도 15,000여권이 되며 학생들이 가장으로 대출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에 독서 시간을 운용하여 교내 독서 감상문쓰기 대회와 교내 독서 골든벨을 년 2회 실시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의왕시 초등학교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해마다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어 왔다. 도서관은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하루 100여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기본이 되는 영어 교육에도 최선을 아끼지않고 있는데 핵심 시스템을 갖춘 어학실 또한 자랑거리이다.

매일 아침 원어민교사가 방송을 통해 생활영어 한 문장씩을 지도하여 년2회 시험을 보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교장상을 주어 격려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교생이 약 200여명이 넘는 생활영어분장을 받고 있다.

고천초등학교만의 특색으로는 관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완전 소중함 나'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학생들의 비만 해소와 체력 향상에 노력해 온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맞춤형 체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학년에 맞는 줄넘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나 걷기 등을 점수화하여 1급부터 5급까지 체력급수를 수여하고 있다.

전교생은 매일 아침 등교 시에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1,2학년은 운동장 2바퀴 3,4학년은 3바퀴, 5,6학년은 4바퀴씩을 의무적으로 뛰거나 걸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놀이를 통한 지표를 해온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재미탐색과 비만해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에 선정된 학생 한명이 방송을 통해 다른 친구 한명을 칭찬하는 '칭찬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학생은 월요일 조회에서 교장이 상을 주어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행도 하고 발표능력도 늘고 인성도 더욱 바르게 변화하는 교육효과를 보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답게 고천초등학교만의 다양한 특징이 넘쳐 났다. 고천초등학교만의 특색을 살려 고안 제작한 '고천 어린이 생활본'을 보면 나의 이모저모, 정다운 우리 집, 주말 인성과제, 기본생활 습관 실천, 혼화기록 등 어린이들이 실천하고 스스로 기록함으로써 생활습관을 길러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태영교장은 교육의 목적으로 장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학업성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성교육임을 강조한다. 또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여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교육할 것을 강조한다.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후배 교직원들은 소신있는 교육을 펼 것을 강조한다.

고천초등학교의 총동문회를 보면 그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대선배들과 지역의 유지로서 헌신하고 있는 선배들이 운동회 등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대선배들의 언덕이 크고 넓다.

고천초등학교의 미래가 더욱 밝다. 그 빛나는 명성이 영원히 빛나길 기원한다.(글 신정애)





## 부곡중학교

유남식 교장 선생님

21세기 새로운 사회는 뛰어난 창의력과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유능하고 성실한 multi player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훌륭한 교육과 스승의 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교 15주년을 맞는 부곡중학교 유남식 교장은 34여년의 교직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왔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개혁을 실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학생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교 화단에는 70여종이 넘는 야생화를 심고 울타리를 학교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조성하였고 야외 음악 감상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내부시설 또한 전문적인 투자로 획기적인 변모를 하였다. 먼저 정수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음수대 시설을 위생적으로 재설치하여 전교생이 맑고 깨끗한 물을 언제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LPG가스를 사용하던 가사실습실을 도시가스로 전면교체하고 조리대도 깔끔하게 교환하여 실습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배가 시켰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남은 책걸상을 학생들의 신체구조에 맞는 새것으로 교체하고 노화되어 잔고장이 많았던 컴퓨터도 일부 교환하고 신형 컴퓨터를 15대 정도 새로 구입하여 학생들의 배우고자하는 열망을 해소시켜 주었다. 보건실도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었고 남학생들을 위해 전용탈의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함께 해오면서 학생들과 전교직원 모두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교장으로서 보람도 크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면서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유남식 교장의 이러한 노력이 날이 갈수록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교장과 학생들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졌고 교직원들의 분위기도 화목하고 업무에도 더욱 더 충실하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지난 5월 교내합창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



고 뜨거운 박수갈채는 힘과 용기가 되었다.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색사업으로는 「학력 Best 회원제」를 시행하면서 매 정기고사 성적이 상위 10%인 학생들에게 「학력 Best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장 선생님이 격려해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품논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명상시간을 운영하고 매주 화, 수, 목요일 아침에는 10분간 독서시간을 운영하여 명상



아침 독서시간

내용을 명상록에 작성하고 책을 읽은 내용은 독서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기별로 우수한 학생에게 시상하고 수행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도서도우미」 조직을 만들고 교육자료 및 장학자료와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등 적극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년 5회 도서관 소식지 「책벌레」를 간행하고 연 2회 다독자, 다독반을 시상하고 연1회 우수독후감을 시상하며 학기별로는 「hundred reader」 시상하고 있다.



독서록

내용을 하였고 경기도대회에서는 4회 수상을 하였으며 전국 태권도 왕 대회 등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5회나 수상을 하였다.

의왕시 청소년댄스 가요제 댄스부문에서 수상하였고 국가 청소년 위원장상 전국합기도 왕 선발대회에서도 1위와 3위에 각각 1명이 수상하였다. 제18회 경기도 중학생 수학, 과학경시대회 지역예선에서도 동상 1명 장려 1명이 수상하였다. 2008학생 통일글짓기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수학학력평가(NMC)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전교생이 독서록과 명상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에 중학년술반과 영화 논술반 운영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발휘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태권도부는 군포 의왕 관내대회에 참가하여 8회 수상



책벌레

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학생들이 기쁨을 토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과학의 날 행사, 교내 영어 말하기대회, 교내 합창제와 학교 대축제인 덕성봉 축제, 독서골든벨 대회, 학교신문 발행 등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기량을 연마한 때문일 것이다.

유남식교장은 앞으로의 학교발전계획으로 급식실을 확충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인 고교진학에 관해 특목고, 명문고 등의 진학을 장상시키고 근본적인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곡중학교가 추구하는 도덕인, 민주인, 능력인, 심미인, 건강인의 덕목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 되어 화목한 가운데 성실히 그 꿈을 이루어 우리 시의 또 하나의 명문중학교로 우뚝서기를 기대해 본다.(글 신정애)



빙과 후 논술학교 영화논술반





## 백운고등학교

라영주 교장 선생님

라영주 교장의 취임 이후 획기적인 대변신을 하며 명문학교로의 변모에 성공한 백운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푸른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의 휴식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흙먼지가 날리던 운동장에 푸르른 잔디를 입히고 그 둘레는 우레탄 트랙을 깔아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거나 빔을 이루어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웃음이 더욱 밝고 건강해 보인다.

복도를 지나면서 보니 외국영화에서나 보았음직한 큼직하고 럭셔리한 사물함이 늘어서 있다. 전교생이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다. 최고급 보안장치까지 견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물리실은 최신기자재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어학실로 영어실, 일어실, 중국어실 등 4개의 외국어전용실을 갖추고 영어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까지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공부로 힘든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구내식당은 일류호텔 스카이라운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

의 View window와 청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식탁을 설치하였다. 최신 시설을 갖춘 전천후 실내 체육관에서는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누구나 원하는 운동을 언제



나 즐길 수 있다. 탁구시설도 완벽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각 교실에도 최신 냉난방시설을 갖추었고 개개인의 특기와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의 특별실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시네30'은 중점을 두고 있는 백운고등학교의 특색사업으로 학업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중압감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인성적 측면을 교사들이 영역별로 엄선하여 선정해주는 명상물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다. 영화감상 후에는 감동과 깨달음을 소감문으로 작성하는데 학생들의 논평실력은 전문 영화 평론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수 소감문과 영화의 소개, 분석 그리고 국내 유명 감독들과의 인터뷰를 엮어 영화마켓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네30'이라는 영화전문지를 발행하였다.

또한 영어동아리 기자들은 학교 내의 소식과 시사, 그리고 청소년들의 관심사 등을 엮어 영어교과 'YARKUN HERALD'를 발행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기사를 만들고 편집하여 원어민 선생님의 감수를 거쳐 책이 완성되기까지 동아리 들은 구슬땀을 흘렸지만 영어실력의 향상은 물론 얻은 것이 너무 많다.

그 외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을 통해 교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지식을 얻고 취미와 특기를 살려 나가고 있다. R.C.Y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인기 밴드 '5150'은 어느 아이들 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농구동아리 ANDI, 기독교 동아리 'L.E.O', 영화동아리 '영.비.전' 영어신문동아리 'CD', 방송반 'TBS', 영화평론반 'B.M.W',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DF', 댄스동아리 'PDMC', 리듬게임동아리 'FOR', '백운 극예술연구회', 만화동아리 '아피', 문화탐방동아리 'UTO', 컴퓨터동아리 'P.C.M.F', 사진동아리 'P.U.P.R'과 축구동아리 '헤르메스'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인문계열 고등학교로서 학력향상과 대학진학률이다.

백운고등학교는 라영주 교장의 부임 이후 '3.3 학업성취'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3.3 학업성취' 프로젝트란 전교생의 3할 미만이 수능 3등급(전국 23%) 이내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수능 3등급이라 하면 서울시에 원하는 대학을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여 지도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력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별시 몇몇 과목에서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향후 2~3년 내에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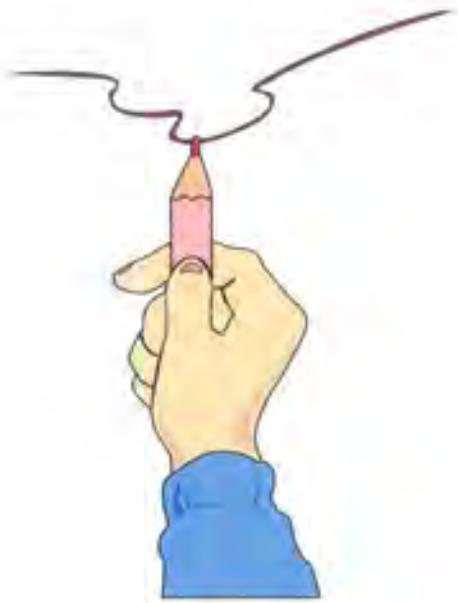


백운고등학교의 이러한 계획은 의왕시 모든 학부모가 원하는 바램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명문학교로서 손색이 없다.

라영주 교장은 이제 백운고등학교의 모든 HARD WEAR는 완벽히 갖추었으며 SOFT WEAR라 할 수 있는 내실도 그득 차였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백운고등학교의 가장 큰 교육의 틀로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굴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을 적극 신장시키며 변화무쌍한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로 우뚝 설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는 믿음과 사랑으로 교육을 하면서 함께 노력한다면 꿈은 실현될 것이다. 라영주 교장은 거듭 강조한다. POWER OF DREAM ~ ! 꿈의 힘은 무한하다. 꿈을 만드시 이루어진다! 백운고등학교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 !(글 신정애)







## 넷·째 마·당

### 글모음

- 수학 익힘책 찾기 / 윤치호
- 공주를 다녀와서... / 이승아
- 나는 경기도가 좋아요! / 강성진
  - 돈보다 귀한 것 / 이정민
- 땀집은 날+효소 찜질+힘든날 / 이은서
- 산다는 것의 감사한 행복 / 김시연
  - 모란꽃 / 최선화
  - 우리의 통일 / 박소진
  - 변화의 계절 / 이우경
  - 사랑이란 / 송대연
  - 고3아들에게 / 김미현
  - 진수야 / 박명원
- 걷는 기분, 기분 좋은 하루 / 이삼근
- 금강산 들살이 / 온뜻학교 교사 초록강
  - 아름다운 내 고향 의왕 / 이필정



# 수학 익힘책 찾기

윤 치 호 / 의왕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수학 익힘책을 잃어버렸다.

어제 밤에 할머니는 “너 수학 익힘책 꼭 찾아와” 하시면서  
종이에 ‘수학 익힘책 찾기’라고 써 주셨다.

나는 오늘 수학 익힘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수학 익힘책을 찾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 말씀을 학교에 와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찾을 필요가 없다.

어제 수학 익힘책을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려고 낸 것이다.

선생님 책상위에 있는 수학 익힘책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 공주를 다녀와서……

이 승 아 / 의왕초등학교 3학년

“야호! 신나는 여행이다.”

토요일 아침 우리가족은 공주로 문화답사를 떠났다.

의왕시민의 모임에서 주최하는 문화답사 여행에 우리 가족이 참가한 것이다.

우리 가족은 아침 8시 전에 출발지인 선병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 선 병원 화단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 놀았다. 그 사이 우리를 태우고 갈 버스가 왔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보다 늦게 출발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 중 늦게 온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마을급고 부설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공주에 갔다. 가는 도중 우리는 시민모임에서 아침식사로 용으로 나누어준 빵을 먹고 한숨 잤다. 내가 일어나고 다시 자고를 3번 정도 반복했다. 엄마와 내가 깨어 있을 때 잠자고 있는 아빠에게 “잠보, 잠행이”라고 놀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엄마의 웃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돌아올 때 아빠께서 먹을 것을 사 주시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내 동생의 의견이 달라서 사지 못하고, 휴식 시간이 다되어 그냥 버스에 올랐다.

고속도로를 몇 십 분을 더 간 후에 드디어 공주에 도착하였다.

맨 먼저 우리는 송산리 고분에 갔다. 송산리 고분에는 무령왕릉을 포함해 모두 7개의 고분이 있다. 1호~6호까지의 고분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때 발굴되었다. 5호 분까지는 모두 터널식 돌방무덤 형태이다. 이것은 한성시대부터 내려오던 백제의 전형적인 무덤양식이다. 그런데 6호 분만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그리고 내 벽에 진흙과 호분을 바르고 벽화를 그렸기에 송산리 벽화고분이라고 한다. 1971년 7월 6일 송산리 5호, 6호분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벽돌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무덤 입구는 벽돌과 백회로 빈틈없이 밀봉되어 있었다. 이 무덤은 곧 전문가들의 조사로 발굴되었다. 무덤의 입구를 열었을 때 왕과 왕비의 지석 2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지석에는 백제 무령왕과 왕비가 돌아가셔서 이곳 대묘에 안장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무령왕릉은 지석의 발견으로 삼국시대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아는 무덤이다. 이 무덤에

서 2,906점의 유물이 나왔고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진짜와 똑같이 만든 고분군 모형관을 방문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모형관에 가서 모형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진짜 무덤인줄 알았다. 그러나 모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무덤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가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덤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진짜 무덤은 폐쇄하고 기존의 무령왕릉 및 5,6 호분을 1:1 크기로 동일하게 만들어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해설가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 중 무령왕에 대한 것이다. 순서는 한성→웅진 시대(공주, 64년간)→사비(부여, 120년)이다. 한성은 아파 휴가 때 가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말한다. 웅진성은 현재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다. 웅진시대는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25대), 성왕이다.

우리는 이 곳에서 5, 6 호분과 무령왕릉에 들어가 봤다. 선생님이 1호에서 5호 분까지는 똑같은 굴식 돌방무덤이기 때문에 5호 분만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5호 분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지독했다. 6호 분은 벽돌무덤으로 내부에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헛가루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를 그렸다는데 그림이 희미해서 잘 분간이 안 된다.

무령왕의 키는 약 8척이다(24cm가 1척이다). 8척은 약 190cm이다. 엄청 키가 크신 분이다. 무덤 모형 옆에 무령왕릉이 발굴될 때의 모습 그대로 만든 모형이 있다. 이곳에는 무덤과 함께 발견된 유물들도 발견 당시와 같은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왕들은 다 청동거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얼굴을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반사되어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금제관식 중 연꽃과 화염은 백제를 나타내는 모양이고, 두꺼비 모양은 왕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머리 받침대와 발 받침대, 신발이 있었다. 머리 받침대와 발 받침대는 시체의 머리와 발을 바쳐 주는 것이고, 신발은 죽은 사신한테 신겨주는 것이다.

모형관을 나와 진짜 5, 6호 분과 무령왕릉으로 갔다. 가면서 멀리보이는 1~6호까지를 세어보았다. 보통 무덤은 반구모양인데 무령왕릉은 반구에서 잘린 모양이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표시된 문만 보았다. 문을 보고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실제 무덤 안쪽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그 때 태어났어도 내가 그곳을 몰랐다면 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형관을 가기 전에도 무령왕릉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일찍 태어났어도 무령왕릉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진짜 무령왕릉이 다시 개방하면 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모형

관과 무령왕릉은 왠지 모르게 재미있다. 모형관은 진짜처럼 만들어져서 재미있고, 진짜 무령왕릉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사진이나 TV에서 보지 않고 진짜로 봐서 신기해서 재미있다.

모형관에 있는 유물들은 모두 모조품이다. 진짜는 공주박물관에 있는데 우리가 늦게 도착하여 박물관에 가는 것은 생략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먹고 음식점 마당에서 동생과 배추기를 잡으며 놀았다. 나는 잡지도 못하고 아예 풀밭에 동생이 놔 준 것만 잡았다. 평소시에는 동생보다 내가 더 잘 잡았는데……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우리는 버스에 탔다.

그 다음 우리는 공산성에 도착했다. 공산성은 금강을 북쪽으로 두고 위치하고 있다. 백제의 성은 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동문지 쪽에 일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의 모습 대부분은 나중에 개축된 석성이다. 이곳에서도 해설가 선생님과 같이 다녔다. 성안에는 '추정 왕궁터'가 있다. 왜 추정 왕궁터라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곳에서 왕궁 건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왕궁터를 보고나서 해설가 선생님과 산성을 한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하나가 누각과 정자의 차이다. 누각과 정자의 차이는 건물 아래를 이용할 수 있으면 누각이고 아니면 정자이다. 누각은 아래 문이 있기 때문이다. 누각 중 다른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 바로 공북루다. 이것은 누각과 다른 점은 현판이 문밖이 아닌 안에 있다.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가는 문으로 임금님이 있는 방향에 현판을 달다 보니 문 안에 달았다고 한다.

나는 은영사에서 성밖으로 나가는 길 중 금강 쪽에 있는 비밀통로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내리막길을 지나기 때문이다. 나는 오르막길은 높아서 싫어하지만, 내리막길은 내려가기 편하고, 내려갈 때 속도가 붙어서 재미있다.

추정 왕궁터는 거란 오차 침입 때 현종이 피난 온 곳이다. 내가 현종이 피난 온 곳에 오다니 신기하였다. 성곽을 돌때 동생은 무서워서 아빠와 손을 잡고 성벽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무서워서 담갈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으로 엄마 손을 잡고 갔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성을 떠나 버스를 타고 금강의 반대편인 석장리 박물관에 갔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1964년부터 1992년까지 12차례에 걸친 학술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석장리 유적의 선사문화 복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비교 전시한 박물관이다.

이곳은 보통 박물관과 다르다.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다른 박물관과 같아도, 영상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또 원시시대, 구석기시대 때 쓰던 무기, 또 그 사람들의 뼈가 있기

때문이다. 해설가 선생님이 오전에는 사람들이 만이 와 설명하기 힘이 들었는데 우리가 간 오후에는 사람이 적어 좋다고 하셨다. 사람이 적은 덕분에 우리는 바닥에 편하게 앉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동물 화석 중 매머드 어금니는 한 개가 엄청나게 커다랗다. 또 유인원-오스트랄로피테쿠스-호모 하빌리스-호모 에렉투스-호모 사피엔스-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순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뇌의 크기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옛날에는 뇌의 크기가 무척 작았었다.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 약간 징그러운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또 우리는 석장리에서 발굴된 석기를 중심으로 전기-중기-후기-중석기-신석기-청동기를 구분한 설명도 들었다. 벽화에 대하여도 들었는데 이곳에는 반구대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었다. 용산 어린이박물관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석장리박물관에서는 그냥 보기만 하였는데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직접 탁본을 해 보았다. 반구대 바위에 새긴 그림은 청동기시대 때 그림이며, 국보 제 285호로 정해졌다. 동생이 벽화에는 성기를 그리지 않는다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그림에서 동생이 질문한 성기를 그린 사람을 찾아 주셨다. 그 그림은 '춤추는 남자'이다. 동생은 창피해서 엄마 뒤로 숨었다. 나는 잘 보이지 않아서 숨지를 않았으나, 엄마가 찾아 주셔서 보고는 나도 엄마 뒤에 숨어 버렸다.

나는 무명왕릉, 공산성, 석장리 박물관 중 석장리 박물관이 제일 재미있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신기한 뼈들과, 모형, 그리고 옛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무기가 신기하면 화살촉은 같아서 만들었다는데 기계로 한 것보다 더욱더 반듯하기 때문이다.

석장리 박물관을 끝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피곤한 우리들의 코고는 소리로 요란했다. 백제의 옛 모습을 체험해보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나니 다른 어떤 날 보다 특별하고 뿌듯하였다.

## 나는 경기도가 좋아요!

강 성 진 / 의왕초등학교 3학년

나는 수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고, 지구에 많은 나라 중에서 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도 많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수도가 있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경기도에서만 생활을 했다.

지금은 이곳 경기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는 북쪽인 일산 근처에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곳의 생활은 뚜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엄마도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 후에는 이곳 의왕시 오전동에서만 쫓 살았다.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곳이 살기가 좋다고들 하신다.

지난번 방학 때 세종문화회관에 관람을 갔었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맵고 목도 따가웠던 기억이 난다. 찾길도 엄청 넓었고 멋진 건물들도 참 많았었다. 엄마는 오랜만에 서울 나왔는데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촌사람이 된 것 같다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왜 경기도에서 사는 것보다 서울에서 사는 걸 좋아해?”라고 여쭙봤더니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셨다. 서울에서 살면 많은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공연할 인권을 가지고 와서 보러가자고 해도 잘 안가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모는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싫다고 하면서 이런 신도시가 주부들이 살기에는 더 좋다고 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는 백화점이며 병원이 있어 멀리 안 나가고 집 근처에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듣기로는 신도시는 경기도에 많이 있고 또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도 있고, 우리 집에서 조금만 가면 바닷가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할 수 있어서 좋고, 민속촌도 있어 옛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 공부도 된다. 그 밖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경기도에 있다고 들었다. 또 해마다 의왕 단오 축제, 어린이날 축제, 걷기대회 등등 많은 행사도 하고, 주민 편의시설인 대형도서관이 있어 우리들한테 유익하고, 수영장도 있다. 학교도 가까운 데 있어서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좋다.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가다 보면 초록색 풀밭에 '살기 좋은 도시 의왕' 이라고 쓴 글씨를 본 적이 있다. 정말 살기 좋은 의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잘 가꿔진 주변 환경 망가뜨리지 말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마주치는 사람들하고는 정답게 인사 나누면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진짜 좋은 우리 동네 의왕이 될 것이다.

## 돈보다 귀한 것

이 정 만 / 부곡초등학교 3학년

어느 누구에게나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바로, 가족이다. 나에게도 돈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엄마와 나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이다. 내가 사달라고 하는 과자는 다 사주시는 부자이지만, 조금은 무서운 분이시다. 할머니는 요리사이다. 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맛있게 해주신다. 뜨개질도 참 잘하신다. 우리 삼촌은 육심쟁이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내 과자를 뺏어먹는 육심쟁이 삼촌이다. 우리 엄마는 나의 수호천사이다. 직장도 다니시고 내 공부도 도와주시고 음식도 하시느라 늘 바쁘시지만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봐주신다.

우리 집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한 마당이 있는 집이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감 나무에 감을 따셔서 맛있게 드시고, 할머니는 예쁜 꽃과 나무들을 키우신다. 삼촌은 마당에서 세차를 하다가 나랑 물장난을 치기도 한다. 우리 엄마는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살도 빼신다. 나는 마당이 있는 우리 집이 참 좋다.

그런데, 이런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으리으리한 큰집에 살고 있어도, 차가 있어도 슬플 것이다. 과자를 사주시는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맛있는 음식을 잘 해주시는 할머니가 없어도, 내 과자를 뺏어먹는 삼촌이 없어도 항상 바쁘지만 내 옆을 지켜주는 엄마가 없어도 너무 슬플 것이다.

나는 사실 아빠가 없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아빠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서는 나를 지켜주는 엄마가 있고, 삼촌이 있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고 보살펴 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가족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 주는 곳이 가정이며, 가족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에게 혼이 나고 잔소리를 들어도 엄마가 좋은 것은 내가 싫어서 패린 것이 아닌 내가 잘 되라고 그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서 나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가족의 사랑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삼촌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들으면서 착한 어린이로 커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사랑을 키워 나가는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모든 친구들이 돈보다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나처럼 아빠가 없거나 혹은 엄마가 없는 친구들도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땀잡은 날 + 효소 찜질 + 힘든 날

이 은 서 / 온뜻학교 4학년

오늘은 운이 좋았다. 자하누리 원장님 말씀을 듣고 효소찜질을 안갔더라면, 전철을 타지 않았더라면 내게는 행운이 없었을텐데...

자하누리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아빠, 엄마와 같이 지하철을 탔다. 신도림역까지 아빠, 엄마와 같이 가다가 아빠는 출근길이라 계속 가시고 엄마와 나는 내려서 서울대 입구 쪽 지하철을 탔다. 한 정거장 정도 가다가 블루 와이번 딱지 한 장을 주웠다. 그 옆을 보니 레드 와이번 딱지가 또 한 장 있었다. 그 딱지를 줌과 목적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 속으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다. 내릴 역에 도착하여 문 앞으로 다가가 바닥을 내려다 보니 다크 와이번 딱지 한 장이 또 있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땀잡은 날이야.

주운 딱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흥얼거리며 자하누리에 도착하여 효소찜질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효소 속으로 들어갔다. 효소는 저절로 발효가 되면서 뜨거워졌다. 그 속에 몸을 묻고 얼굴만 내 놓고 15분 정도 있었다. 이렇게 2주일이나 계속했다.

나는 효소 찜질이 무척 뜨거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다. 원장님도 알맞게 따뜻하다고 하셨다. 원장님은 도 닦는 분처럼 가만히 앉아 계셨다. 찜질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온 몸이 가려운 것이다. 나는 그게 참기 힘들었다. 찜질할 때는 힘들었지만 결과는 열 다섯 배 정도의 보람이 있었다. 몸도 가벼워지고 코도 좋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졌다. 찜질을 하고 나면 약간 힘이 빠지지만 조금 있으면 힘이 생긴다.

2주간의 껌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을 탔다.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힘이 들어 잠이 왔다. 엄마께서도 잠이 오시는 모양이다.

엄마와 나는 서로 몸을 기대고 서서 다리 아픔도, 피곤함도 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는 동안 지하철은 우리집 앞 역에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50분. 피곤했지만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한다.

2주동안 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언제나 웃음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 산다는 것의 감사한 행복

김시연 / 고천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며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 동생이 주는 과자 한 조각에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친구가 양보하는 자리 하나가 큰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반면 우리는 더 높은 자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과자 하나에 기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얻었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커다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커다란 행복은 무엇일까? 돈벼락을 맞는 것-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모두 아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산다는 것의 행복은 누리자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산다는 것은 인간이 평생 누리는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이다.

‘파랑새’ 출판사의 [정표 이야기]라는 책은 이정표라는 아이의 투병일기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 정표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린 아이이다. 한 참 친구들과 뛰어놀 시기에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이름 모를 일본인의 소중한 결정으로 인해 골수를 이식받아 힘들게 투병을 하였다. 강한 약 때문에 열노, 골다공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난 정표의 살려는 의지가 일기 속에 뚜렷이 나타났었고, 백혈병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무지하게 아픈 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매일매일 일기를 써 나갔다. 1년 9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정표는 백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지만 2007년 1월 14일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나는 정표의 일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음에 얼마나 큰 감사를 깨달았는지 모른다. 정표는 가족들을 사랑했고 또 사랑했다. 정표의 선생님도 사랑했고 친구들도 사랑했다. 그래서 정표는 너무나도 살고 싶어 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아름다운 사랑들. 우리는 꼭 후회를 한다. 있을 때 잘 할걸...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 있어서, 내 곁에 있어 줘서 감사함을 알아야한다. 내일 죽을까? 내일은 더 아플까? 라는 걱정 고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꽃과 나무와 바람과 햇살이 나를 반긴다.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오늘도 나에게 인사를 먼저 건넨다. 하나 밖에 없는 나의 가족들이 오늘도 나를 챙긴다. 길을 걷다 보면 흙이라고는 한줌도 채 되지 않는 아스팔트에서 이름 모를 잡초가 오늘도 살려고 애를 쓴다. 모두가 내 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난 지금 엄청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난 정말 복 받은 아이이고 행복한 아이이다. 하루하루 건강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허락 하셔서 정말 감사 또 감사하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다.

## 우리의 통일

박 소 진 / 부곡초등학교 3학년

새들은 좋겠다.  
훨훨 날아 항경도도 가고.

새들은 좋겠다.  
훨훨 날아 평안도도 가고

풍선타고 날아가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풍선타고 날아가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자유로워 질 텐데……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행복해 질 텐데……

어서 어서 통일되어  
꼭 안아주세요.

어서 어서 통일되어  
한 마음 되어요.



# 변화의 계절

이 우 경 / 온뜻학교 4학년

가울이 되자  
따랑던 버가  
누렁게 변했다

가울이 되자  
덥던 날씨가  
쌀쌀해졌다

가울은  
식육의 계절  
독서의 계절  
변화의 계절이다



# 사랑이란

송 대 연 / 부곡초등학교 5학년

사랑이란.

사랑이란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야.

사랑이란.

사랑이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같이 웃고 우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이란.

사랑이란

어린이, 어른

누구나

말은 쉬워.

사랑은

진실하고

구멍없는 마음만이

진정한 사랑이야.

사랑은 모두

받을 수 있어.

아기도, 친구도

어른도

이 세상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란.

사랑이란

예수가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큰 행복.



# 모란꽃

최 선 화 / 우성고등학교 3학년

수락산 우듬지. 언땅의 자궁 속에서  
 지난밤 수두를 앓던 나무들이  
 뼉뼉 - 온몸을 굽기 시작한다  
 긴 택줄을 끊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산 모퉁이 사이로 햇살을 분만하는 땅이  
 쌀튀방처럼 뿔갹게 돌아난다

하혈하듯 주름진 배를 가르고  
 분만의 고통을 식히며  
 땅은 솟아오르는 봄의 똥알이들을  
 받아낼 준비를 한다

끈끈한 양수를 뚫고 나와  
 나무에 꽃봉오리들이 부어오른다  
 월짝 날개를 펴고  
 물갹처럼 번지는 모란꽃잎들  
 한순간이라도 뜨겁게 살아 보고 싶다고  
 제 몸을 태우는 향기를 낸다

두드러기 난 것처럼  
 나뭇가지에 떠져버린 꽃망울들이  
 햇살에 녹아. 진물같은 수액을 뚝뚝 흘리며  
 불씨처럼 타오른다.



## 고3아들에게

김미현

습관처럼 자명종은 울리고 있건만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모습

아침은 왜 이리 힘든지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너에게 늘 입버릇처럼

“고3은 사람이 아니다”, “1년만, 6개월만 그리고100일만 죽었다 생각하라고” 했던 말들이 자꾸만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구나.

한창 모든 것이 왕성한 시기인 너에게 이런 말들밖에 할 수밖에 없어 엄마의 마음이 몹시 무겁구나.

하지만 아들아! 지금 이 시기를 인내하고 너의 목표를 향하여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훗날 조금은 엄마의 말에 수긍하고, 이해 해주지 않을까 싶구나.

TV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지난 세월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위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말 들을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이더구나.

한참 어른이 된 50대 아저씨들까지도...

이 대답을 들으면서 엄마도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곤 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엔 동의도 하지만 인생의 일부, 특히 네가 살아가는 동안, 때론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도 있단다.

그리고 내 아들이 TV 설문조사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며 오늘도  
엄마는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공부, 공부” 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신분인 지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최고, 최상의 것은 그래도 그것밖에 없구나!

여름방학기간에 반 친구들과 함께 그 힘든 태백산에 올라갔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정상에서 통화했던 말 기억하니?

여정은 힘들어도, 도전은 힘들어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 하  
루도 열심히 살거라 아들이.

너는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단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믿고 있다.



# 진수야

박영원

항상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빠의 마음 속에는 뿌듯함과 호뭇함 그리고 자부심이 늘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너의 모습 잃지 않기를 아빠는 간절히 기원한다.

현재 고3으로서의 너의 시간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너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수 있고, 험난한 자갈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진수는 잘 알고 있으리라 아빠는 믿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알 것이다.

엄마를 통해서 너의 담임선생님이 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수야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너에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유혹이 너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단다.

아빠로서 꼭 부탁하고 싶단다.

너, 친구, 가족! 이 모든 구성원들은 네 자신이 목표한대로 잘 되었을 때 너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란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1년 후, 10년 후의 너의 모습을 그려보는 자세로 살아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어야 한단다.

그것은 바로 꿈, 목표, 실천력

이 세 가지만 항상 너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실천한 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아빠가



## 걷는 기분, 기분 좋은 하루

이삼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호흡하고 있는 의왕에는 산책하기 좋은 산들이 가까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중함이 더한다. 나 역시 시간이 허락되는 주말을 이용해 가까이 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두발로 서서 보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발은 원래 걷기 위해서 만들어져 걷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 기능이 약해지고 만다. 현대는 갖가지 교통수단이나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생활이 대단히 편리해 졌다. 이렇게 편리해질수록 인간은 차츰 발을 쓰지 않는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도시 직장인의 출퇴근 모습은 전철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직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이용한다. 겨우 몇 십보 밖에 걷지 않는 생활의 연속이고, 자동차는 우리를 걷는 입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의 뼈가 부러져 한 두달 쯤 기브스를 하였다가 떼어 냈을 때 놀랍도록 그 다리만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폐용성 위축이라고 해서 쓰지 않으면 그 근육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쓰지 않으면 녹스는 것이다. 발뿐만이 아니라 근육도 스포츠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혹사시키면 노화를 앞당기고, 근육을 쓰지 않고 편안히 묵혀두면 자꾸만 기능이 떨어져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발이 약해지는 것은 고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근육운동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지하철의 계단을 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이 차거나 무릎이 뜻대로 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발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헉헉거리고 두근두근 심장이 뛰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걷기운동을 권한다. 운동부족으로 생긴 대부분의 성인병은 걷기 운동만으로 충분히 치료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쉬운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하는 “걷기” 만큼 전신운동의 효과가 큰 운동도 드물다.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에서 일상생활 외에 운동으로 소모해야 하는 열량이 하루 250~300Kcal 정도이고 보통 걸음으로 1시간 30분, 속보로는 1시간 정도, 달리기로는

30분의 운동에 해당하는 양이다. 걷기는 무엇보다도 아침식사 전에 규칙적으로 해야만 가장 효과가 크다. 짧은 사람들은 건강 달리기를 선호하지만 먼저 걷기로 몸을 다진 후에 달리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곧바로 달리를 해서 는 안된다.

걸을 때는 체중의 1.1~1.2배에 달하는 무게가 발에 실리는 데 달릴 때에는 무려 3배 이상의 체중이 실리므로 발목, 무릎, 고관절 등에 상해를 입기가 쉽다. 달리를 할 때에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 무조건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옆 사람과 대화할 정도로 달리거나 가볍게 달리다가 차츰 속도를 올리고 다시 늦추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걷기와 달리는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렇지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작심 3일에 그치기 쉬운 운동이 바로 걷기와 달리기이다.

새벽에는 공해물질이 지면 가까이 가라앉아 새벽 운동이 몸에 해롭다는 견해도 있으나 운동효과 면으로 보면 새벽 운동만큼 좋은 시간대는 없다. 새벽시간에는 위장이 공복의 상태이므로 이때 우유 한 잔 정도를 마신 뒤 운동을 하면 골격 내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조절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섭취된 탄수화물이나 당분 등을 주 에너지로 소모하게 되므로 체중조절 효과가 떨어지며 소화 장애를 일으킬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2시간이상 지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 관념이야말로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적당량의 운동은 1주일에 3일 이상 계속한다면 기대한 만큼의 체력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금강산 들살이

온뜻학교 교사 초록강

대해 명산을 눈으로 보고 쓱쓱이 서울을 향해 돌아가네.  
몸은 다시 진애 속에 묻혀도 흥중엔 마직도 바다와 산이 있구나.

작년 이맘 때쯤부터 이야기가 이어온 금강산 들살이.  
가을의 끝자락, 풍악산을 만나볼 부푼 꿈들을 저마다 한아름씩 안고 온뜻 친구들은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채비를 하여 피곤하기도 할 텐데, 졸다 말다 하는 건 초록강과 호박뿐이고 아이들의 맘은 이미 금강산에 가 있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들려오는 느닷없는 환호성!

“와~ 바다예요! 바다!!”

강원도에 가까울수록 언뜻언뜻 보이던 바닷자락이 빨간 등대와 어울려 그림같은 동해.

좁은 차 안에서 비좁게 끼어앉아 움짹달짝 시끌시끌하던 아이들이 ‘와~’ 하며 바다도 달려간다.



“초록강, 나는 바다 처음 봤어요.”

은강이와 은지도 활짝 핀 얼굴로 다리를 척척 걷어올린다.

한 발 한 발 바닷가에서 발을 담그는 아이,

짧은 여행에 한 벌뿐인 바지에도 아랑 곳 않고 파도 속으로 침범하는 아이,

모래성을 쌓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아이,

저 멀리서 조개껍데기 줍느라 여념없는 아이,

잠깐 쉬었다 가기로 한 것이 금세 두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놀 때는 신났지만 속옷까지 몽땅 젖은 몸에 모래까지 범벅인 몇몇 아이들은 급기야 노상에서 목욕하는 총각들이 되었고 관심도 없는 여자 아이들한테 “오지마~, 보지마~”를 외치며 노팬티에 파자마 바지를 뚱뚱 걸어 입은 모습이 절로 웃음을 자아냈다.

김일성 별장에 도착할 즈음엔 이미 날이 어스름했다.

그래도 올라가보자 하고 절벽에 세워진 작은 성으로 오르며 김정일 위원장과 그 형제들이 어릴 때 앉아 사진을 찍었던 계단에 앉아 비슷한 포즈를 취해 보며 붉게 지는 해를 감상하기도 했다.

“근데 왜 김일성 별장이 우리 남한에 있어요?”

예리한 질문이죠.

“응, 이 건물은 6·25 전쟁 전에 만든 거야.”

어느새 날은 짙게 짙어져 느즈막히 저녁을 먹고 금강산 콘도로 향했다.

노팬티 총각들부터 차례대로 샤워를 하고 9시부터 잠자리를 청했다.

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밤새 철썩철썩 들려왔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소곤소곤 수근수근 대는 강체력 아이들.

새벽밥 뜨끈한 황태국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다. 으슬으슬 새벽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북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제 정말 북녘 땅을 밟는구나 했는데 그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버스 타고 내려서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영상교육 받고 다시 셔틀버스 타고 민통선 통과,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무표정의 북쪽 군인들에게 엄격한 통관 절차 마치고 다시 셔틀버  
스 타고 온정각 하차,

또 버스타고 금강산 입구 도착.

도대체 우리 땅 우리가 가는데 왜 이리 복잡한 거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은 지금부터다.

금강산의 단풍에 입을 벌리고 연초록의 물줄기에 눈이 휘둥그래지는 것도 잠시, 만물상  
코스를 택한 우리는 강제력팀과 약체력팀으로 나누어 등반 시작.

강체력팀 - 초록강, 경백, 은지, 영, 우경, 은서, 석우, 은민

약체력팀 - 호박, 소진, 은강, 세울

주제탐구수업 시간에 들려준 <금강산 이야기>에 나오는 거북바위, 독수리바위, 무지개  
다리는 다 어디 있나? 저마다 헉! 헉! 소리가 절로 난다.

석우 말로 85도가 넘는 절벽에 층층계단을 잡고 산 아래를 뒤돌아 보니 ‘으악~’ 비명을  
지르지 않을 재간이 없다.

갑자기 경백이와 석우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초록강, 저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있다구요~”

어느새 날다람쥐처럼 올라간 은민이와 영이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지마! 위험해!  
소리소리치면서 약체력팀을 걱정한다. 그 걱정이 도리어 자극이 되어 세울이와 은강이까  
지 그 험한 코스를 통과 전원이 만물상 천선대에 올라 안내원 동무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  
았다.

딱딱한 무표정의 북쪽 군인들과는 달리, 금강산 곳곳에서 만난 안내원들과 산허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강산 호텔에서 음식을 주었던 누나들 모두 아이들의 손을 뭉싹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들이 가기 전에 한 약속 “북측”이라는 말을 잘 지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스스럼없  
이 그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을 찍고 물건을 사기도 하면서 비싸다 싸다 어찌구 저찌구...

평일에 온 탓에 풍악산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북쪽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천선대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산한 북측 안내원 동무들과 손을 꼭 잡고 내려오는 우리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 마음이 바로 통일시대에 필요한 것이리라 생각했다.

깔끔히 온천욕을 마치고 남측 출입사무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의 소감을 묻는 내게 한 아이가 말한다.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기는 한데, 뭔가 모르게 슬퍼요.”

누구는 내일 또 오자고 하고 누구는 백두산도 가자고 잠시 떠들어대면서도, 마지막 서를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왠지 모를 아련함을 저마다 느끼고 있었다.

저기 로봇처럼 뻣뻣히 서 있는 북측 군인 아저씨들을 창 넘어 말없이 쳐다보면서 말이다.



## 아름다운 내 고향 의왕

이 필 정 / 문화원이사, 시인

어느 누구나 어린시절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리라 여긴다. 내 고향은 의왕시 이동 오봉산자락 아래 20여호가 웅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농촌마을 가나무골이다. 지금은 오봉역이 위치하고 있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중년이 된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고동치고 동심의 세계로 빨려 들어감을 느낀다.

자연의 섭리에 취해 문학소년이 되고자 했던 꿈도 아름다운 나의 고향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순진했던 초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송사리, 피라미, 짱구, 찢찢이 등등 별명을 불러도 마냥 즐겁기만 했고, 봄에는 산길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아카시아순, 찢레순을 벗겨 먹으며 산새알을 꺼내어 파잎 속에 넣어 잿불에 구워 먹던 기억과 여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며 서로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가을에는 나무그늘에 앉아 도토리를 주워 땅에 묻고 그 위를 두드려 따먹기를 하며 놀던 기억이 새롭다.

학교 가는 길은 5리길로 서낭당 고개를 넘어 논과 밭이 손잡고 바람결에 한 바탕 돛음으로 일렁이는 황금물결 사이로 나있는 비포장도로를 총총걸음으로 50여분간 걸어야 도착 할 수 있었다.

그 먼 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춤에 둘러 묶든가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에 묶고 다녔으니 발길을 옮길 때마다 책보 속 도시락은 달그락 달그락 장단을 맞춰 주었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서산에 해가 늪엿늪엿 저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보를 벗어 던지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들판으로 달려가 일손을 돕던 일이 생각난다.

여름방학은 즐겁기만 했다. 식물채집, 곤충채집은 나의 작은 정성이었지만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썼고,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은 마냥 즐거웠다.

겨울방학은 구슬치기와 썰매 지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6학년이던 때는 쭈쭈이 바지가 유행했으며 검정고무신을 신은 친구들이 많았고, 흰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은 한 두명에 불과했다.

골사그네, 오메기, 통미, 새말, 국말, 전지나미, 골우물, 진개골, 가나무골, 안골, 상학골 등등 동네 이름도 다양했지만 어디에 어느 친구가 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사내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는 자치기, 공차기, 말타기였고, 계집아이들은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공기놀이 등이었다. 계집아이들의 고무줄놀이는 짓곳은 사내아이들의 표적이었다.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모습들이 어린 시절 나의 추억이었으며 그 아름다운 추억은 돌아오지 않는 흘러간 세월이 되었으니 어찌 아쉽지 않으랴. 그 때를 회상하며 시 한 수 읊어 보리라.

여치랑 사슴벌레랑 길동무하며 걷던  
내 유년 시절 오솔길  
산다랑 밭에 널려 있던 참외  
지금도 코끝에 매달려 있다.

고갯마루  
떨러이던 신의 오색띠 돌무덤  
쭈뼛선 머리털 겁에 질려 달아나고  
산나무꾼 줄지어 오가는

억새꽃 나부끼는 산록  
노루 뛰는 산 속에 솔개 날면  
풀숲 뒤집어쓰고 숨죽이던 토끼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산바람 불어오면 숲 냄새  
풀 향기 따라 범나비 춤추고  
부엉이 울면 산비둘기 멍달아 울던 고갯길  
도토리 땅에 묻고 두드려 따먹기 하던  
개구쟁이들 어디에 있을까

소문 없이 피는 싸리꽃 되어  
들쥐되어 오솔이 되어  
풀잎도 잠 깨우지 않는  
이슬로 스며들어  
추억의 고갯길 걷고 싶다

「서낭당 고갯길」 전문(이필정시집 『향기로운 여정』에 발표한 시)

이토록 고향은 언제나 마음을 짠하게 하고 눈물을 글썽이게 한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의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받은 행복이라 여기며 오늘도 의왕에서 하루를 보낸다.

의왕문화 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회상해 보았지만 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때의 참모습을 다 표현하지 못해 못내 아쉽다.

아무튼 의왕문화 6호 발간과 더불어 의왕문화원의 발전과 의왕시민이 하나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을 나누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길 기대한다.



## 다·섯·째 마·당

### 문화원 소식

- 의왕문화원 연혁
- 의왕문화원 임원명단
- 2007년도 의왕문화원 회의개최
- 2007년도 의왕문화원 주요행사
- 회원가입 안내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 의왕문화원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소개
- 편집후기

### 의왕문화원 사업목적

1. 지역고유의 문화개발, 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의왕문화원 연혁

의왕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225개 지방문화원 중 1999년 경기도 지사로부터 인가되어 개원한 특별공익법인(정부재정 지원기관)이다. 또한 2000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 문화학교로 인가받았으며 2001년 4월 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었다.

1999 / 02 / 23	문화원 설립 및 발기인 창립총회(44명) 및 추진위원 구성(98명)
1999 / 03 / 10	설립기금 조성(5,000만원)
1999 / 05 / 30	의왕문화원 창립 발기인 총회 - 정관제택 - 이사선임 23명 - 임원선출
1999 / 09 / 07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위탁운영 협약체결
1999 / 09 / 29	의왕문화원 개원, 박용하 초대원장 취임
2000 / 01 / 15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2000 / 10 / 20	의왕문화원 부설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00 / 12 / 02	준 문화학교 지정(경기도지사)
2001 / 04 / 06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경기도 교육감)
2001 / 08 / 30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의왕시사편찬위원회 구성
2003 / 09 / 29	제2대 박용하 원장 취임
2005 / 04 / 15	충남 태안문화원과 자매결연
2007 / 09 / 28	제3대 이종훈 원장 취임
2007 / 11 / 21	의왕시사 발간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및 이사 28명, 대의원 26명, 회원 1,000여명.</li> <li>• 3개 위탁기관 운영(문화의 집, 문화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과 지역문화 행사 및 문화학교 운영(문화강좌), 복권기금사업 등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음</li> </ul>

## 의왕문화원 임원명단

연번	직 급	성 명	핸 드 폰	주 소
1	원 장	이종훈		
2	부원장	정진우		
3	부원장	이동수		
4	이 사	김강호		
5	이 사	김상돈		
6	이 사	김우남		
7	이 사	김정자		
8	이 사	남기영		
9	이 사	류도세		
10	이 사	류윤세		
11	이 사	박덕순		
12	이 사	박석근		
13	이 사	박용일		
14	이 사	박용철		
15	이 사	박찬호		
16	이 사	유영국		
17	이 사	유지웅		
18	이 사	윤무영		
19	이 사	이강협		
20	이 사	이기주		
21	이 사	이덕형		
22	이 사	이양수		
23	이 사	정경모		
24	이 사	지영호		
25	이 사	최동현		
26	이 사	이필정		
27	감 사	고경덕		
28	감 사	김호영		

## 2007년도 의왕문화원 회의개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 고
1. 문화원임원 및 회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 1명</li> <li>• 부원장 : 2명</li> <li>• 이사 : 26명</li> <li>• 감사 : 2명</li> <li>• 회원수 : 1000여명</li> </ul>	의왕문화원 회원 및 임원
2. 회의개최 (이사회, 총회)	2월 1일 2월 26일 4월 11일 5월 25일 7월 19일 8월 22일 9월 6일 10월 12일 12월 11일	의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이사회 개최</li> <li>• 제8차 정기총회 개최</li> <li>• 제2차 이사회 개최</li> <li>• 제3차 이사회 개최</li> <li>•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li> <li>• 임시총회 개최(제3대 원장선거)</li> <li>• 제5차 이사회 개최</li> <li>• 제6차 이사회 개최</li> <li>• 제7차 이사회 개최</li> </ul>	임원회의 임원 및 대의원 임원회의 임원회의 임원회의 및 대의원 임원 및 대의원 임원회의 임원회의 임원회의
3. 운영위원 회의개최	2월 7일 3월 30일 7월 3일 8월 13일 10월 19일 11월 13일	의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운영위원회개최</li> <li>• 제2차 운영위원회개최</li> <li>• 제3차 운영위원회개최</li> <li>• 제4차 운영위원회개최</li> <li>• 제5차 운영위원회개최</li> <li>• 제6차 운영위원회개최</li> </ul>	임원회의
4. 향토문화연구소 회의개최	5월 23일 10월 19일	의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논의, 탈퇴위원정리</li> <li>• 향토문화연구소를 향토문화 연구회로 재조직 의논</li> </ul>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5. 강사 회의개최	4월 28일 11월 22일	의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회 의왕단오축제협조</li> <li>• 2007 문화학교 수료식 전반에 관한 회의</li> </ul>	원장 문화학교 강사
6. 지원금 신청	8월 30일 11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도 사업계획 제출</li> <li>• 문화예술진흥지원신청</li> </ul>	의왕시청 경기문화재단
7. 관내학교우수 졸업생표창	2월9일~19일	관내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중, 고등학교 19개교</li> </ul>	원장

## 2007년도 의왕문화원 주요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 고
1. 의왕 취호대회	2월 24일	의왕시 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 100여명</li> <li>• 義王市, 義王市史를 명제로 한 취호대회</li> <li>• 대상-구자영(문화원대의원) 수상</li> </ul>	의왕시민 학생 100여명 참가
2. 문화유적 답사	4월 28일 10월 23일	경기 여주 일원 충남 공주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도자비엔날레</li> <li>• 회원 및 임원 120여명 참가</li> <li>• 무녕왕릉, 공주국립박물관, 공산성관람</li> <li>• 회원 및 임원 80여명 참가</li> </ul>	문화원 가족
3. 임원 문화탐방	6월 5일 12월 18일	강원 삼척 충남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경묘 관람, 삼척 일원</li> <li>• 임원 및 대의원 50여명 참석</li> <li>• 태안문화원 방문</li> <li>• 임원 및 대의원 40여명 참석</li> </ul>	문화원 가족
4. 제8회 의왕단오축제	6월 17일	고천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행사</li> <li>• 초청공연(전통타악 '타오', 줄타기)</li> <li>• 전통놀이(씨름, 그네 등)</li> <li>• 경연대회(단오아름마선발대회)</li> <li>• 체험행사</li> </ul>	의왕시민 3,000여명 참가
5. 제7회 백은시에대전 및 시상식 작품 전시회	7월~10월	문화원 3층 감당 및 전시실 의왕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6 1차운영위원회</li> <li>• 8/10 2차운영위원회</li> <li>• 8/27~31일 작품접수 (성인127, 중,고등부 79, 초등부279점 총 485점 접수마감)</li> <li>• 9/6 심사, 9/8 수상자 취호대회</li> <li>• 9/10 수상자 발표(성인 55, 학생부 259 총314점 수상)</li> <li>• 9/18 시상및전시회</li> <li>◎ 여성회관 전시실 (10월 2일부터 3주간)</li> </ul>	의왕문화원 의왕시청  운영위원장 김강호 위원 유지용, 이덕형 박재홍, 박용빈 박언기, 장창근 문관효, 정갑순
6. 의왕문화6집 발간	8월 8일 12월 3일 12월 20일	의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편집위원회의</li> <li>• 2차 편집위원회의</li> <li>• 3차 편집위원회의</li> </ul>	위원장 유지용 김강호, 박용철 이덕형, 유영국 이택, 이필정 편집간사 조준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 고
7. 여름갯벌 탐사	8월 17일	인천 을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산 해수욕장</li> <li>• 해수욕 및 갯벌체험, 조개, 제갈기</li> </ul>	회원 및 임직원 120여명 참가
8.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7월 20일 7월 27일 8월 18일 9월 1일	학의천 부곡체육공원 갈피 문화의거리 고천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수 박남정, 명진호마술, 노래마당 등</li> <li>• 가수 김도향, 섹소폰,</li> <li>• 가수 조정현, 어린이무용단, 댄스스포츠</li> <li>• 가수 김범룡, 테너 이영환, 비보이</li> </ul>	의왕시민 3,000여명 관람
9. 의왕문화원 원장이, 취임식	9월 28일	문화원 3층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대 박용하 원장 이임 및 제3대 이종훈 원장 취임식</li> </ul>	의왕문화원
10. 제6회 백운예술제 (옛길걷기대회)	10월 7일	백운호수주변 (오메기, 능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등록 및 행운권 지급</li> <li>• 사진전시, 내 고장 바로알기 문제 풀기, 행운권 추첨상품 증정 등 (300명참가)</li> </ul>	의왕문화원
11. 제11회 청소년음악제	10월 27일	문화원 3층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17일 접수마감 (43팀 참가, 피아노, 관현악, 성악부문)</li> <li>• 11팀 수상</li> </ul>	의왕문화원
12. 제12회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11월 9일	문화원 3층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문화원 부설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 200여명 관람</li> </ul>	뮤지컬 갈라팀 Polos 찬조출연
13. 향토문화연구소 유적답사	11월 10일	서울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덕궁, 경복궁, 용양봉저정</li> <li>• 정조대왕 능행차 코스 관람</li> </ul>	회원 및 임직원 120여명 참가
14. 의왕시사 발간기념식	11월 21일	문화원 3층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시사 1집(7권) 총 1,500집 발간</li> <li>• 21개 초, 중, 고, 대학 대표학생에게 의왕시사 수여, 감사패증정</li> <li>• 의왕시사 경과보고, 서평, 웹시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기관장</li> <li>• 각급학교 대표학생</li> <li>• 편찬위원</li> <li>• 자료제공자 및 내빈</li> </ul>
15. 송년음악회	12월 7일	문화원 3층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송년음악회</li> <li>• 소프라노 박미경</li> <li>• 가수 문희옥, 신나, 김명옥</li> <li>• 섹소폰 최재훈</li> </ul>	의왕문화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 고
16.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12월 21일	문화원 3층 강당 및 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좌별 발표회</li> <li>• 강좌별 전시회</li> <li>• 수료식 및 시상식</li> <li>• 결식아동돕기 성금 전달</li> </ul>	의왕문화원
17. 복권기금 사업 (장애우가 연주 하는 천상의 소리 핸드벨)	6월-10월	해밀터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시 장애인보호시설 해밀터 장애우 20여명</li> <li>• 핸드벨 연주 교육</li> <li>• 연주회 1회 실시</li> </ul>	문화의집 복권기금
18. 복권기금 사업 (우리소리로 하나되는 우리 -풍물교실)	5월-10월	의왕 함께가는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자녀 20여명</li> <li>• 주1-2회 풍물 강습</li> </ul>	문화의집 복권기금



## 회원가입 안내

의왕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면 누구나 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이 되신 분께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되실 수 있으며 의왕문화원 문화학교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왕문화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의 활성화와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린 문화원으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 문화 창달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나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남겨주고 지역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 문화원 회원의 회비

- 연회비 : 10,000원 이상
- 문화원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회비는 문화원 사무국에 직접 납부, 또는 계좌이체(농협 211040-51-077856 예금주 : 의왕문화원)로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 문화원 주소

- (437-82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 전화 : (031)456-4994 / FAX : (031)452-2174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항상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각 파트(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〇〇명.
2. 응시자격 : 현재 초등학교 1학년~중학생까지.
3.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
  - ▶ 배부처 : 의왕문화원 사무실, 의왕문화원(www.uwcc.or.kr) 소년소녀합창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접수장소 : 의왕문화원 사무실
4. 실기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 반명함 사진 1장 · 악보 1부(자유곡)
6. 실기전형 및 면접장소
  - ▶ 의왕문화원 3층 연주홀
  - ▶ 면접은 1차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면접시 반드시 학부모 동반참석.
7.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8. 혜 택
  - ▶ 체계적인 발성교육 및 연주를 통해 예중, 예고, 음대까지 연계교육.
  - ▶ 초등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노래지도로 동요대회 출연.
  -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봉사확인증명서 발급.
9. 문의처
  - ▶ 의왕문화원 사무국(031-456-4994, 456-4998)
  -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 011-267-2121(여춘엽 선생님)
  - ▶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 019-550-3887(고현일 선생님)

## 의왕문화원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소개

### ■ 성인강좌

강좌명	내용	강의시간	선생님	수강료
서예	한글·한문기초부터 작품까지	수, 금 10:00~12:00	박용빈	3개월 35,000원
사군자	기초부터 작품까지	목, 토 10:00~12:00	박재홍	
산수화	기초부터 작품까지	목 14:00~17:00	박재홍	
풍물	기초부터 중급까지	수 10:00~12:00	이혜선	
프레스플라워	기초부터 작품까지(아외수업병행)	화, 금 10:00~12:00	신지숙	
오카리나·펜플룻	기초부터 지도	목 10:00~12:00	박인선	3개월 각 30,000원
민요·소리장구	기초부터 지도	월, 수 10:30~14:00	진희정	3개월 60,000원

### ■ 아동강좌

강좌명	내용	강의시간	선생님	수강료
아동서예	서예 기초부터 작품까지	수, 금 17:00~18:00	박용빈	3개월 30,000원
아동한자	고전 강독, 국가공인 한자급수시험대비	수, 금 16:00~17:00 수, 금 18:00~19:00	박용빈	
아동미술	유치반(5~7세) 저학년반(초교1~3년생) 고학년반(초교4~6년생)	화, 목 15:00~16:00 화, 목 16:00~17:00 화, 목 17:00~18:00	이경란	
오카리나 펜플룻	기초부터 지도	금 16:00~18:00	박인선	3개월 각 30,000원
청소년미술 (수행평가대비)	초등학교(초5년 이상) 뎃생수제화(초5년 이상) 초등학교(초5년 이상)	토 14:00~16:00 토 16:00~18:00 일 10:00~13:00	이경란	3개월 60,000원

- ♣ 수강신청은 매 분기(3,6,9,12월)마다 받으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 수강료는 직접납부 또는 전화 후 계좌입금 (농협 211040-51-081176 예금주 의왕문화원) 하시고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되며 수강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 ♣ 유아(4세이상)를 동행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한 유아 놀이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수강문의 : 의왕문화원 사무국 ☎456-4994, www.uwcc.or.kr



# 편 · 집 · 후 · 기



『의왕문화』 6호발간  
 다사 다난했던 정애년이 저물어 가고 이제 희망찬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할 즈음 『의왕문화』 6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지역주민과 의왕문화가족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왕문화지 발간을 위해 맘과 노력이 깃든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 문화지가 더욱 발전하여 의왕시민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또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 적극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왕문화지를 만드는데 수고해주신  
 편집위원과 이종훈 문화연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특히 무성고등학교 조준구 선생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편집위원장 유 지 웅



◀ 6호 편집위원

## 의왕문화 6호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유지웅

편집위원 | 김강호, 박용철

이덕형, 유영국

이택, 이필정

편집간사 | 조준구

발행인 | 의왕문화원장

인쇄일 | 2007. 12.

발행일 | 2007. 12.

인쇄처 | 대양미디어



## 의 왕 문 화 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전화 : 031)456-4994

팩스 : 031)452-2174